

학교밖 청소년 5명중 1명 '질환의심'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5명중 1명은 '질환 의심대상자'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11일 공개한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 4872명 가운데 19.8%(964명)의 청소년이 '질환 의심대상자'로 분석됐다. 2016년 18.1%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다.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은 신장질환, 고혈압, 간장질환, 빈혈, 이상지질혈증 등의 순이었다.

질환의심 청소년(964명) 중 1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84.1%(810명), 2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13.5%(130명), 3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여가부, 2016년 18.1%보다 1.7% 상회 신장질환>고혈압>간장질환>빈혈 순

도 2.4%(23명)였다.

B형간염 검사 결과 69.3%(3357명)의 청소년에게 B형간염 집종이 필요했다. 면역자는 30.0%(1451명), 간염보균자는 0.7%(34명)로 나타났다.

C형간염 검사를 받은 청소년 3718명 중 15명은 C형 간염 검사(C형간염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독 및 HIV(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청소년 1017명 중 매독 의심 청소년은 4명, HIV는

해당자가 없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은 청소년 86명 중 자궁경부암이 의심되는 청소년은 없었다.

치아우식증(충치)의 유병률은 29.2%이며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우식치아(충치) 개수는 평균 3.2개, 치주질환 유병률은 24.3%, 부정교합 유병률은 20.8%로 나타났다.

또 건강생활습관 조사결과 식생활, 안전의식, 인터넷 이용 등 전반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6~18세에서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9~12세 82.9%, 13~15세 75.1%, 16~18세 46.3%였다.

청량음료, 햄버거·피자 등 패스트푸드의 섭취율은 9~12세(9.6%)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13~15세 12%, 16~18세 21.2%로 집계됐다.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하는 비율은 9~12세 58.6%, 13~15세 40.9%, 16~18세 32.4%로 조사됐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비율은 16~18세에서 39%로 가장 높았다. 9~12세는 9.5%, 13~15세는 27.4%로 나타났다.

뉴스스

태국 동굴 소년들, 17일 만에 밖으로

태국 동굴에 최장 17일 동안 고립돼 있던 유소년 축구팀이 10일(현지시간) 기적적으로 전원 구조됐다.

태국 해군특수부대 네이비실은 이날 북부 치앙라이주 '탐루엣' 동굴에 갇혀 있던 유소년 축구팀 '부빠'(야생 멧돼지라는 뜻) 선수 12명과 25세 코치 한 명 등 13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다.

네이비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밤, 야생 멧돼지들이 다시 한 팀이 됐다. 민세라며 "이 순간이 기적인지 과학 덕인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야생 멧돼지 13명 전원이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동굴에 남아 있던 소년 4명과 코치 역까뿐 찬파영이 이날 마지막으로 구조됐다. 코치는 동굴에 갇혀 있는 동안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핀 데 이어 끝까지 아이들을 지키는 책임감을 발휘했다.

이날 생존자들을 모두 동굴 밖으로 내보낸 뒤 마무리 작업을 한 의사와 네이비실 대원 3명도 몇 시간 뒤 안전하게 복귀하면서 태국 동굴 소년 구조 여정은 아무 탈 없이 막을 내렸다.

구조당국은 지난 8일 오전부터 구출 작전을 시작했고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6시 50분(한국 시간으로 8시 50분) 마지막 생존자를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부빠 소속 소년 12명과 코치는 지난달 23일 치앙라이주에서 훈련을 마치고 인근 탐루엣 동굴을 관광하러 들어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은 갑자기 내린 비로 수로의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됐다.

이들은 실종 열흘 만인 이날 2일 밤 동굴 입구에서 약 5km 떨어진 동굴 내 고지대 '파타이 비치' 주변에서 발견됐다. 아이들은 코치가 시키는 대로 명상을 하며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전장에 맞힌 물을 마시며 구조를 기다렸다.

'노비축 노출' 英남성, 의식 되찾아

신경작용제 노비축에 노출된 40대 영국 남성이 의식을 되찾았다.

1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솔즈베리 병원은 이날 "찰리 롤리(45)가 의식을 되찾았다"며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다"고 발표했다.

로나 윌킨슨 간호부장은 "롤리가 의식은 회복했으나 아직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병원에서 계속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롤리는 지난 4일 영국 남동부 에임즈베리에서 돈 스티지스(44)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러시아가 개발한 군사용 신경작용제 노비축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롤리와 함께 솔즈베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스티지스는 지난 8일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영국에 미방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 율리아에 대한 노비축 암살 시도가 발생한 솔즈베리에서 12km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했다.

영국 경찰은 롤리와 스티지스를 공격한 노비축이 담겨 있던 용기를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스크리팔 사건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이 앞서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 정부를 지목한 가운데 크렘린궁은 '러시아가 영국 여성(스티지스)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생각은 매우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보호종 거북이 불법포획 판매 美 60대 구속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한 60대 남성이 무려 3500마리의 보호종 거북이를 불법으로 잡아서 밀거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주 검찰청이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 동부 검찰청은 데이비드 서머스(62)가 뉴저지의 해안 늪지대에서 등에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는 국제 보호종 테리핀(북미산 작은 거북의 일종) 거북이들과 알을 불법 포획해왔다고 밝혔다.

이 다이아몬드 등 거북이들은 뉴저지주 법 뿐 아니라 국제조약으로도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미 연방 어류야생동물 보호국은 지난 해 10월 펜실베이니아주 레빗타운에 있는 서머스의 집에서 약 3400마리의 이 테리핀 새끼들을 압수했다.

서머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그가 거북이 새끼들을 캐나다로 밀수출하면서 해양 생물의 상업화를 규제하는 '레이시법'(Lacey Act)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법은 불법적으로 포획한 모든 야생동물, 어류, 식물류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시원하다 대구·경북 1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오후 대구시 중구 달성공원 수돗가에서 참새들이 목을 축이고 있다.

검찰, '기무사 촛불 계엄령' 공안부 배당...군과 공조할 듯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죄 고발 MB 기무사, 정부 우호 기사 게재 관여 수사

검찰이 박근혜정부 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전날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죄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군인권센터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며 "구체적인 병력 운영 계획까지 세워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 자유로운 민주집사를 농단한 어론 기억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독립수사단 구성 등을 통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하며 군 수사단 구성 등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정부 기무사

령부가 보수매체를 동원해 정부 정책을 옹호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 지난달 보수 인터넷신문 코나넷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코나넷은 안보 전문 매체로, 발원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기무사가 코나넷을 지원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기사를 실도록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기무사 예산이 투입된 정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두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당시 여권 지지·이권 반대 등 정치 관련 글 2만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기무사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영장심사관 뒤편 구속 영장 발부율 13.6%p ↑

영장심사관 제도가 수사 전문성 및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이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지방청(23개서)에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 제도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타당성·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변호사직역자나 수사전문가를 따로 두는 제도다.

경찰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올 한해 23개서에서 시범 운영을 거치고 정원을 확보해 내년 부터는 1급지 경찰서(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 3~7월 영장심사관이 검토한 사건의 영장 발부율을 비교하면 구속영장은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영장 93.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각각 66.1%, 88.6%, 87.7%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 실시로 강제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당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되어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고객센터 1577-1000]